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SUPERPOWERLESS

가제 : 슈퍼히어로에게 없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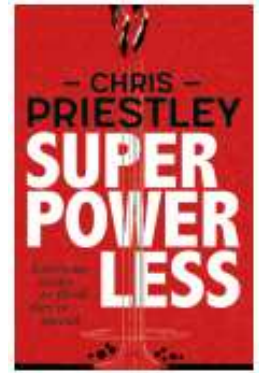
저자 : Chris Priestley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7년 6월 1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아름답고 흥미진진한 소설. 특히 저자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돋보인다.” – 작가 『크리스 리델』

* “십대들이 읽을 만한 이런 소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 필립 위맥, 『LITERARY REVIEW』

집 꼭대기 다락방을 개조해서 만든 작은 공간은 만화책들로 가득하다. 한때는 아빠 서재였던 이 공간은 이제 데이빗이 틈날 때마다 머무르는 은신처가 되었다. 엄마와 데이빗, 두 사람만 사는 집이라 복직일 일이 없는데도 데이빗은 나른한 휴일 오후마다 다락방에 드러누워 만화책에 푹 빠져 살았다. 대부분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이야기로, 줄거리보다 데이빗의 관심을 사로잡는 건 멋진 그림이었다. 슈퍼히어로를 소재로 한 만화나 영화는 계속 새로 출시되고 학교에도 유독 영웅이 등장하는 최신영화에 심취한 아이들이 많지만 데이빗은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아빠가 모아둔 오래된 만화책, 손때 묻은 책장에 기가 막히게 그려진 그림만큼 섬세하고 흥미로운 건 없었다. 외계종족이 지구를 덮쳐 힘없는 인간들을 괴롭힐 때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미는 만화 속 영웅들을 묘사한 그림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았다. 엄마는 햇살이 반짝이는 오후를 방안에만 틀어박혀 해묵은 책이나 들여다보는 아들에게 연신 잔소리를 해대지만, 데이빗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성인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다 보니 엄마는 자꾸 앞으로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살 건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지만, 데이빗의 입에선 좋은 반응이 나오지가 않았다. 2년 전, 세상의 전부였던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엄마와의 사이는 급격히 악화됐고 다정한 대화는 불가능해진 것 같았다. 엄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데이빗의 삶 전체가 그 비극적인 사고 이후 엉망이 되어 오직 이 작은 방에서, 아빠가 소중하게 모은 만화책을 뒤적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성도 없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데이빗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바로 데이빗 자신이 슈퍼히어로라는 사실이다.

데이빗은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영웅들이 가진 능력을 모두 갖고 있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오는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고, 원하면 공중으로 날아 올랐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

을 수도 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두 손으로 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도 있었다. 하
곳길에 집으로 향하다가도,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리면 가까운 종탑 위로 재빨리 날아올라서 소
리 나는 쪽을 찾아 자칫 저 세상으로 갈 뻔한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특
별한 능력만으로도 인생이 좀 더 활기차고 뿌듯할 수 있을 텐데, 데이빗은 아직 방황하는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 무엇보다 2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좁은 방에 배 깔고 누워 책장을 넘기는 것 외에 데이빗이 최근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같
은 거리에 사는, 이웃집 정원을 망원경으로 몰래 들여다보는 일이다. 처음에는 다섯 살 많은 그
집 누나, 홀리 헌터가 비키니만 걸친 채 누워 선탠 하는 모습을 블라인드 틈새에 끼운 렌즈를 통
해 훑쳐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데이빗이 가진 남다른 능력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좋은 일에만 쓰려던 슈퍼히어로의 재능은 데이빗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이 아닌
복잡하게 뒤엉킨 사건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데이빗에게는 또 한 가지, 그 능력보다 훨씬 더 어
둡고 깊은 비밀이 있었다. 다락방에 숨어서 회피하는 대신, 꼭 눌러놓았던 비밀과 용기 있게 마
주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로 활동해온 저자의 멋진 삽화가 스무 장 넘게 포함되어 흥미를 더한
다.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에 있는 십대들이 특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다.

<저자 소개>

크리스 프리스틀리(Chris Priestley)는 미술을 공부하고 20년간 런던에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
이터, 만화가로 활동해 왔다. 『ANYTHING THAT ISN'T THIS』 등 여러 권의 저서를 발표하여 6
만권 이상 판매고를 올렸으며 카네기 메달, 에드가 상, UKLA 아동 도서상 등의 후보로 선정됐다.

제목 : SPELLBOOK OF THE LOST AND FOUND

가제 : 잃어버린 것들과 마법의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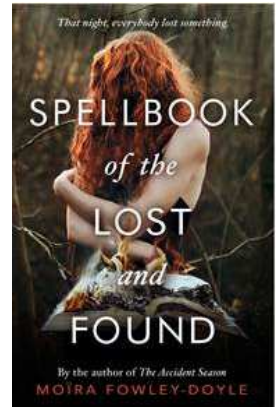
저자 : Moria Fowley- Doyle

출판사: Corgi Childrens

발행일: 2017년 6월 1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미국, 독일, 포르투갈, 브라질, 스페인 판권 계약 체결

* 데뷔소설 『*The Accident Season*』으로 워터스톤 상(*Waterstones Prize*) 결선 후보에 오른 재능 있는 작가의 두 번째 작품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날, 각자 다른 이유로 파티장을 찾은 아이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모두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이다. 머리핀, 신발 한 짝,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걸치고 있었던 재킷 같은 사소한 물건부터 잃어버린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그날 밤 모두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엉키고 희미해진 기억을 되살려 모든 걸 되돌리려는 아이들 앞에 마법의 주문이 적힌 책이 나타난다. 없었던 일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주문이 담긴 이 신비한 책은 아이들을 더 큰 혼란으로 몰고 가기 시작한다.

5월 7일 아침, 올리비아는 해가 막 떠오르는 서늘한 들판에서 추위에 떨며 깨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로즈부터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봐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밤, 로즈의 고집대로 파티에 함께 온 올리비아는 대부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술과 다이어트 콜라, 담배, 괴성, 온갖 포즈로 찍고 또 찍어댄 사진과 노래, 춤과 함께 정신 없는 시간을 보냈다. 해마다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 마을에서 개최되는 이 파티는 매년 이렇게 한바탕 퍼 마시고 신나게 흔들 어대는 흥겨운 행사였다. 어른들은 어디서 대여해온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고리타분한 음악을 들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십대들은 들판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바비큐를 하면서 마음껏 즐겼다. 로즈는 파티에 갈 준비를 하면서 올리비아에게 무조건 술을 진탕 마시고, 눈물콧물 썩 빠지도록 펄펄 우는 것이 목표라고 비장하게 선언했었다. 이상하게도 전날의 기억은 누가 잘라간 듯이 희미하고 올리비아는 로즈가 울었는지, 어땠는지도 떠오르지 않았다.

로럴과 홀리, 애쉬는 전혀 다른 이유로 비장하게 파티에 참석했다. 이미 그 주 첫날부터 학교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진 뒤라, 주말 파티는 세 친구에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문제는 홀리의 일기장이 감쪽같이 사라진 일로 시작됐다. 일기장은 다섯 페이지가 뜯겨 나간 채로 어디선가 나타났는데, 고의로 남의 일기장을 가져간 범인은 트리나로 드러났다. 수업이 끝나고 다들 책가방을 챙기고 있을 때 트리나가 그 일기장을 손에 든 채 책상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와 속내를 고스란히 적어 놓은 홀리의 일기는 그렇게 반 전체에게 공개되고 말았다. 참다 못한 애쉬가 홀리 대신 책상에 뛰어 올라

가 트리나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방 먹였고 그 일로 정학 처분까지 받았다. 며칠이 지나고 내밀한 속내가 만천하에 공개된 홀리의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에, 로렐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는다. 자신의 일기장도 사라진 것이다. 그 사실을 애쉬에게 전하자, 애쉬도 일기장을 잃어버렸다는 더 놀라운 사실을 전한다. 또 트리나의 짓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가져간 것일까? 세 사람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마을 파티에서 진상을 밝히기로 다짐한다. 그러나 사태는 세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올리비아는 자신만 두고 가버린 로즈를 겨우 찾아내지만, 기껏해야 액세서리와 신발을 잃어버린 자신과 달리 로즈는 지난 밤, 뭔가 엄청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로즈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미처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도 직감한다. 하지만 로즈는 결단코 입을 열지 않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두 사람의 우정에 서서히 균열이 오기 시작한다. 한편, 로렐의 일기장에서 뜯겨 나간 페이지가 마을 곳곳에서 나타나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올리비아는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존재들을 발견한다. 아이비와 헤이즐, 그리고 헤이즐의 쌍둥이 남동생 로완은 버려진 집에서 몰래 살고 있었다.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이 세 사람에게 묘한 매력을 느낀 올리비아는 로즈처럼 뭔가를 잃어버린 것이 분명한데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잃어버린 물건, 사라진 무언가로 상처 입은 이들 앞에 주문이 적힌 낡은 책 한 권이 나타나면 서 상황은 또 다른 방향을 흘러간다.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오래된 주문서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줄 주문이 적혀 있다. 그러나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알았던 마법의 책은 찾으려 하지 않았던 것,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데려간다.

탄탄한 스토리와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흥미를 자아내는 흡입력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모이라 파울리 도일(Moira Fowley- Doyle)은 프랑스인과 아일랜드인의 혼혈로 현재 더블린에서 글을 쓰고 있다. 여덟 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YA 소설을 주제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데뷔소설 『The Accident Season』으로 워터스톤 상(Waterstones Prize) 결선 후보에 오르며 호평을 받았다.